

해외출장보고서

I. 출장 개요

1. 출장건명: International Policy Forum on Crisis and Agricultural Trade 참석 및 발표를 위한 해외출장
2. 출장목적: “높은 식량가격 기간 동안 한국의 실상과 경험”에 관한 사례 발표
 - 포럼주제: “위기와 농산물무역”에 관한 국제정책포럼 참석 및 발표
 - 행사주최: FAO, 중국농업부 농산물무역촉진센터, 국제경영경제대학교
3. 출장지역: 중국 북경
4. 출장기간: 2012. 11. 14(수)~11. 17(토) (3박 4일)
5. 출 장 자 : 농업관측센터 성명환 연구위원

II. 주요 출장 결과: 사례 발표 내용

□ 국제 곡물시장의 특성 분석

- 국제 곡물가격의 흐름을 보면 1970년대 초반, 1980년대 초반, 1990년대 중반, 2000 후반에 가격급등 현상이 발생함.
 - 곡물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급등락은 경제내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전체의 위험관리비용을 증가시킴.
 - 가격변동성이 커지면 곡물생산자는 가격 불확실 때문에 생산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, 투자도 기피함. 결국 생산제약으로 작용하여 곡물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됨.
-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특성은 곡물가격 간 공조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임.
 - 밀, 옥수수, 대두 가격이 연쇄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경향
 -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등락은 과거 7~8년 또는 10년 주기로 발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가격변동 흐름이 과거에 비해 점점 짧아지고 있음.

- 이러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원인은 식용 및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, 곡물시장으로의 투기성 금융자본의 유입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함.

□ 곡물과 관련한 한국의 농업 동향

- 2011년 한국의 전체 인구는 4,978만 명으로 이중에서 농업인구는 296만 명에 불과
 - 농업인구 비중이 1980년 28.4% 이었으나 2011년에는 6.0%로 감소
 - 국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1980년 13.7%에서 2011년 2.3%로 크게 감소
 - 농경지면적은 2011년 169만 ha로 1980년 220만 ha의 77% 수준
 - 전체 경지면적에서 농경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2.2%에서 2011년에는 17%로 감소
- 한국의 곡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
 - 쌀 생산량은 1990년 561만 톤에서 2011년에는 422만 톤으로 감소
 - 밀 생산량은 2011년 4만 톤 수준에 불과
 - 콩 생산량은 1990년 23만 톤에서 2011년에는 13만 톤 수준으로 감소
- 국내 곡물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곡물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
 - 쌀 자급률은 1990년 108.3% 이었으나 2011년에는 83.0%로 하락
 - 현재 밀과 옥수수 자급률은 1% 수준에 불과
 - 전체 곡물의 자급률은 22.6%로 1990년 43.1%로 비교하여 20.5%p 감소
- 곡물수입량은 2000년 1,384만 톤에서 2010년에는 1,437만 톤으로 증가
 - 밀 수입량은 432만 톤, 수입액은 10억 달러에 이름
 - 옥수수는 20억 달러인 851만 톤을 수입
 - 전체 수입금액은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늘어나는 추세임.

□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국내 가격에 미친 영향

-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 수입비용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물가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.

- 2007년 7월의 밀 선물가격은 톤당 225달러였으나 그 이후 가격이 급등하여 톤당 403달러까지 상승함. 이에 따라 국내 밀가루 가격은 90%, 국수가격은 약 50% 상승
 - 2007년 7월의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128달러였으나 그 이후 가격이 급등하여 톤당 276달러까지 상승함. 이에 따라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72% 상승함.
 - 2007년 7월의 콩 선물가격은 톤당 313달러였으나 그 이후 가격이 급등하여 톤당 553달러까지 상승함. 이에 따라 국내 대두유 가격은 27%, 두부 가격은 22% 상승함.
- 향후 국제 원유가격 상승, 달러화 가치가 하락 등 세계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국제 밀, 옥수수, 대두 가격은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.

□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시사점

- 세계 곡물수출은 특정국에 집중된 독과점적 형태를 갖는 반면 교역량은 총 생산량의 15% 내외에 불과함.
 - 곡물 수입국은 다수이나 수출국은 소수여서 생산국이 판매에 많은 영향을 행사함.
 - 따라서 주요 생산국의 농업정책에 따라 세계 곡물시장에 큰 영향을 줌.
-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2.6%에 불과하여 식량안보 차원에서 곡물자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 - 그동안 높았던 쌀 자급률이 2010년 104.6%에서 2011년 83.0%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쌀의 자급률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.
- 한국은 2008년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단기적 해결 대안과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구분하여 실행함.
 - 단기 대응은 가격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산자나 기업 위주로 국내 차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음.
 - 중장기적 대응 방안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, 그 실적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.

□ 중장기 대응 전략

○ 국내 차원의 단기 대응

- 국내 단기 대응으로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비 보조와 사료업체의 원화한 곡물 확보를 위한 사료곡물 관세인하(0%) 및 원료구매자금 지원금을 증액
- 2012년 조사료 수입쿼터를 확대하여 조사료 공급을 늘렸으며,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 비율도 2008년 10.5%에서 2010년 13.4%로 확대
- 수입밀과 수입콩의 가격안정을 위해 식용 수입콩 방출가격을 인하하고 수입콩 비축량도 증량
- 제분용 수입밀, 사료용 콩 및 옥수수의 할당관세도 0%로 운용
- 수출입은행의 수입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곡물 수입을 위한 대출시 우대금리적용 및 수입신용장 수수료를 인하, 보험공사는 곡물에 대한 수입보험을 확대함.
-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동계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 수립

○ 국내 차원의 중장기 대응

-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, 옥수수, 콩을 대상으로 해외곡물유통망 구축을 위해 국제곡물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함. 2011년 4월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산지엘리베이터, 수출엘리베이터 등 현지 유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현재까지 실적은 미미했음.

○ 국제 공조차원의 중장기 대응

- 장기적인 국제공조차원에서 개별 국가의 대응정책만으로는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WTO,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국제협력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
- 세계곡물시장정보의 투명성과 관측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함. 현재 G20 AMIS가 관측시스템은 아직까지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여 향후에는 국가별, 지역별 관측시스템 구축 및 국제통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.
- 중장기적으로 중국, 한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간 농업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곡물생산기지 확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함. 이 지역은 양호한 농업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협력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기여분에 대한 처분권 보장 협정을 통해 이 지역 식량

안보 강화 방안을 제사함.

□ 기타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 내용

○ 주요 주제 내용

- 중국의 농산물 무역 진전과 전망
- 세계 및 중국 경제 동향과 농산물 무역
- 세계 곡물 공급 및 가격변동성이 중국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

○ 기타 주제 내용

- 시장 통합과 가격전이
- 세계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
-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
- 투기적 자본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